

## 참프레

## 전북 부안군에 '장학금 3천만원' 기탁



참프레대표 고흥열·오른쪽가 전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권익현 부안군 수)을 방문해 장학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참프레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참프레(대표 고흥열)는 최근 전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재단을 방문하여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기탁했다.

부안 제2농공단지에 자리잡은 참프레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지역민에 대한 보답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역사회에 기탁하고 있다.

참프레 고흥열 대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참프레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만큼, 지역민에 대한 보답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부안군 장학재단이 지속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일꾼으로 거듭나 지역발전에 기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재단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가까이 장학사업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안군 장학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